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9. 12. 13(금) 14:00부터

배포

2019. 12. 12(목)

책임자

손해보험연구실
정성희 실장(3775-9024)

작성자

한상용 연구위원(3775-9026)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총 4매

보험연구원,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가치경영을 통한 지속성장·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자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12월 13일(금) 오후 2시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행사 취지) 이번 토론회는 저성장·저금리 구조의 심화와 IFRS 17의 도입으로 보험회사가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의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가치경영 실현을 위한 보상체계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됨
 - (주제: 국내 보험회사 임원보수체계 현황 및 평가) 이젠마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연동된 변동보수의 비중을 높여 보수체계에서 성과급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시장상황과 미래 리스크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단기성과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차단하고, 보수지급의 공시에 있어 보험회사 임원의 개별 보수액 및 보수책정의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원의 주식 장기보유 조항을 두어 보상체계가 회사의 장기성과와 직접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보험회사의 가치경영 중요성 강조)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손익 관점에서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보험회사가 내재적 가치 제고를 통해 보험이 가진 장기사업모형의 특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제: 국내 보험회사 임원보수체계 현황과 평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이젼마 교수

임원보수체계를 회사의 장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단기 혹은 장기 정책의 효율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기업의 장기성과 달성 및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임원보수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주주 혹은 채권자와의 인센티브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국내 보험회사 임원의 기본급(고정급) 지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낮춰 30% 이하로 설정하고, 성과와 연관된 변동보수 지급 비중을 높여 변동보수 위주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는 성과보수 지급 비중이 '18년 기준 23.9%로 고정급 위주의 보수체계로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보수체계를 성과와 크게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장기성과에 의해 보상되는 연동보수 비율 확대를 위해 성과보수 중 당해 지급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30~40%로 낮추고, 지급기간도 보험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CEO의 경우는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해당연도를 제외한 3년(총 4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급비율은 평균 50%인 반면, 장기성과와 연동된 보상비율은 총보수 대비 '18년 기준 12.3%로 매우 낮은 편임
- 성과보수의 당기 지급은 현재와 같이 현금 지급으로 하되, 이연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추가연계 방식의 지급을 삭제하고 주식 지급으로 대체하거나, 성과급만큼의 주식매입 기준을 설정하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성과보수(이연지급) 지급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고, 주식연계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50%로 높으나, 이 경우 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후 주주와의 인센티브 연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더 이상의 장기성과 연동과는 무관하게 됨

- IFRS 도입 전이라도 시장 상황과 미래 리스크를 반영한 '보유계약+신계약가치'로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단기성과에 치중할 인센티브를 차단하도록 하여야 함
 - 국내 보험회사의 성과보수 산정기준 중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수익성 지표는 아직 IFRS 도입 이전이라 원가방식 회계처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과 미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단기성과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음

- 현재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임원보수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로 일원화하여 공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보고서에 개별임원, 특히 CEO의 개별보수 금액, 구성요소, 평가방식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3개년치 보수 공시를 의무화하여야 함
 - 현재 임원보수체계 공시를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각각 공시하고 있으나, 정보의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가 보완적이기는 하나 다른 형식과 기준을 두어 연계가 어렵고, 다른 장소에 공시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떨어짐

- 임원의 주식 장기보유 조항을 두어 임원의 보상체계가 회사의 장기성과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